

Daniel J. Treier 박사 , 잠언 , 세션 2, 잠언 10-29장, 미덕

© 2024 다니엘 트라이어(Daniel Trei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잠언에 대한 강의에서 Dr. Daniel J. Treier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션, 잠언 10-29장, 유덕한 품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잠언 읽기에 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은 두 가지 길, 곧 생명에 이르는 지혜의 길과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이 장에서는 신실한 부모가 제시한 지혜의 유산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으므로 잠언 10장부터 29장은 첫 부분에서 소개한 신성한 계시를 수집하고 표현합니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이 컬렉션에는 도덕적 삶과 관련된 기본 일관성을 나타내는 산발적인 주제 클러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의 주요 노선을 제시하기 위한 질서 있는 패턴이 필요하며, 기독교 전통은 잠언이 관심을 두고 있는 도덕적 삶에 대해 긍정적인 묘사와 부정적인 묘사를 모두 제공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도덕적 형성을 위한 피조물의 집인 가족이 개인의 삶을 이번 두 번째 강의 주제인 유덕한 성품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주요 환경입니다. 미덕은 깊은 성향을 계발하여 좋은 점, 즉 특정 상황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게 합니다.

사람은 덕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언은 젊은이의 상대적 순진함을 위협할 정도로 불안정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성격을 형성합니다.

기본 미덕, 신중함, 절제, 용기, 정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에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기본 덕목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일한 성경적 인용은 실제로 비개신교 정경인 솔로몬의

지혜서 8.7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수고는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제와 신중함, 정의와 용기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이보다 인간에게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자연과의 연관성과 이 미덕 계획의 그리스 기원을 고려할 때 기본 미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틀은 기독교인과 대안적인 도덕적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시민적, 철학적 참여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미덕은 기본 또는 주요 요소입니다. 그것은 단지 행동뿐만 아니라 적절한 욕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도덕적 발전이 주로 좌우되는 것들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구원과 별개로 식욕을 올바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의 통합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온전함으로 인해 특정한 미덕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미덕조차도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 질서로 인해 다소 단편적인 방식으로 미덕을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것과 미덕을 개인 삶 전체에 통합하는 전체적, 완전한 통합 사이의 이러한 구별은 올리버 오도노반(Oliver O'Donovan)의 저서 부활과 도덕(Resurrection and Moral)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문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학적 덕은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을 얻고 추구하는 구속의 은혜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이러한 영적 현실은 인간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초인간적이거나 신성한 덕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성을 넘어서서 그것들은 성령에 의한 신성한 생명에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미덕은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에 맞추지만, 우리가 창조물에서 본래 취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언약의 교제 안으로 다시 데려가시는 데서 비롯되며, 이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 실천도 독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신학적 덕목과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게 될 일곱 가지 대죄, 즉 중대한 악덕이 비록 잠언에서 직접 유래한 것은 아니지만 적합하고 상응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도덕적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가르침의 주요 강조점 대부분을 정리하는 유용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미덕과 악덕은 우리가 잠언의 교훈을 조사하고, 구조화하고, 요약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잠언이 특정 행동을 장려하거나 금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품성을 다루기 위해 행동을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포착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나는 잠언이 도덕적 진보와 지혜, 특히 부모와 언약 공동체의 영적 유산을 받아들이려는 성향을 촉진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잠언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인격 형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은 이러한 기본적인 신학적인 미덕에 대한 기독교 전통의 묘사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보완하고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이러한 미덕에 대한 다음 조사는 그 중 어느 것에 대한 주어진 히브리어 용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일은 관련 개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컬렉션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정 주제에 관한 일련의 어휘와 구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양한 잠언을 인용하는 데 상당한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잠언이 구두 만남을 위한 것이며 잠언에 대한 나의 설명보다 잠언이 많은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잠언의 내용만 앞장서서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 덕목 중 첫 번째인 신중함은 다른 덕목을 규제하는 데 관여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나머지 세 가지 덕목은 특정 영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중함이 그들을 규제합니다. 변덕스러운 열정보다는 이성에 의한 행동과 반응을 명령하면서도 개인 상황의 특수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정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우리의 행동에 합당한 것을 제시합니다. 인내는 어려움과 궁극적인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올바른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절제는 육체적인 식욕을 억제할 것입니다.

이제 신중함을 소심함, 두려움, 교활함, 이중성 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신중함은 실천 이성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참된 선을 식별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미덕입니다. 규칙과 조치를 설정하여 다른 미덕을 안내합니다.

잠언을 읽기 시작하면, 잠언이 얼마나 신중함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먼저 분명해져야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주제인 '지혜를 얻으라'는 주제와 그 맥락인 두 길의 교리가 나머지 책 전체에서 끝없이 반복됩니다. 특히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조 평행법은 한 줄에서 동전의 한쪽 면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는 반대면을 기술하는 대조 평행법입니다.

이러한 상반되는 평행법은 문학적 측면에서 신중함의 가치, 지혜의 가치, 특정 상황에서 살아가는 방법 및 어리석음을 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강화합니다.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 분별력의 가치를 뚜렷이 표현한 것 중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마음은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19:21).

따라서 많은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함은 사회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는 지혜로운 자녀를 기뻐하고 신중함은 권력과 진정한 부를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약 주장 각각에 대한 구절의 흐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중함의 가치에서 구성 요소로 이동하면 구성 요소에 대한 주요 설명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장 5절을 보면 여름에 거두는 아이는 슬기로워도 추수 때에 자는 아이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9장 20절을 보면, 말이 성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생각하고 서두르지 말라는 주제는 말이 신중함을 위한 필수 영역이라는 사실과 합쳐집니다. 이는 타이밍 측면에서 사실입니다.

적절하게 말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2511). 그리고 신중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과 관련된 형태인 듣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듣기도 전에 대답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1813.

말하는 지혜의 상황에 민감한 특성에 대한 또 다른 일반적인 예와 일반적으로 잠언을 잘 읽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매우 일반적인 예를 보려면 26장 4절과 5절을 참조하십시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바보가 되십시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리라 이 연속적인 잠언은 잠언 수집가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거나 잠언이 모순된다는 것을 시사합니까? 별말씀을요.

요점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의 응답이 필요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분별력을 가질 만큼 지혜가 충분히 자란 사람입니다. 이 잠언을 미리 배우면 상황의 역동성을 인식하고 한 방향 또는 다른 방향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자신이 바보가 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는 바보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음에 취약한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도록 돕는 데 집중해야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들은 상환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따라 그 바보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잠언의 많은 진리는 기회와 자원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장려합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은 계획하고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현명함은 어리석은 자립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자제력과 전략적 계획과 함께 지혜의 더 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모와 다른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함, 어리석음을 피함, 부모에 대한 관심 등과 관련된 지혜를 얻는 것에 관해 많은 것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신중함을 얻는 데는 시정에 대응하는 일이 자주 포함된다는 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나 훈계를 듣는 자는 슬기 있는 자니라 15:5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를 경히 여김이라 훈계를 듣는 자는 깨달음을 얻느니라, 15:32. 견책은 어리석은 사람을 백 번 때리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더 깊이 찌르는 것입니다(17:10). 더욱 긍정적으로, 조언을 통해 신중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언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성공합니다, 15:22. Catherine Dell Reilly는 여기서 이것이 내가 들어본 위원회에 대한 최고의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도 그것이 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주장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인간 문화를 뒷받침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잠언을 빌리고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창조주의 일반 은총 덕분에 삶의 특정 측면에서 이 신중함의 미덕을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창조 질서의 요소들과 일치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리석음을 피하고, 부모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시정을 받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어느 정도 신중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은 인간의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획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며,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완전히 통합되고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신중함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본 미덕인 정의는 자연과 은총 사이의 유사한 모호함에 직면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문답을 다시 조금 인용하면, 정의는 하느님과 이웃에게 자신의 의무를 바치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에 있습니다. 온전한 의미의 정의는 이웃에 대한 책임과 하느님에 대한 경건을 통합하여, 우리가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 관계에서 인간과 공동선에 대한 평등을 촉진하는 조화를 확립하도록 해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우상 숭배와 불의를 불가분의 관계로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에는 이웃에 대한 효도뿐만 아니라 적절한 욕구도 포함됩니다. 포괄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서의 예배가 마침내 요구된다. 그러므로 잠언은 먼저 의, 즉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불의로 얻은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0:2. 악인은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하지만 의를 뿌리는 사람은 진정한 보상을 받습니다. 11:18.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행실이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11:20.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21:3. 그러한 의에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포함됩니다. 인간의 영은 모든 가장 깊은 부분을 살피는 주님의 등불입니다.

20:27. 궁극적으로 그러한 의는 선한 의도나 높은 자기 평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20:11). 이는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는 잠언의 힌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6-9. 물론 어리석은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지혜와 정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정의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28:5. 이러한 이유로 두 번째로 인간 사이의 정의를 검토할 때 자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주지만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보류합니다.

거기에서 의무 메모를 들으십니까? 그리고 단지 고통을 겪습니다. 11:24. 의인은 가난한 자의 권리를 안다. 악인은 그런 이해력이 없습니다.

29:7. 가난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 경향의 측면에서 보면 그 의미는 축복이나 보응에 관한 잠언의 특정한 오해와 대조를 이룬다. 상대적인 경향의 관점에서 볼 때,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는 의미가 때때로 암시됩니다. 28:6. 부자인데도 굽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여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식으로, 어쩌면 단지 이런 식으로만 잠언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확인하지만, 부가 자동으로 신의 은총과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잠언에는 부의 원천이 되는 부정 이득에 대한 수많은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장과 2절에서 불의로 얻은 보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1:1과 같은 다른 텍스트도 있습니다. 거짓 저울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15:27.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안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 것이다. 또한 많은 성구에서는 폭력을 금지하는데, 잠언 24:15과 16에서는 때때로 의로움이 악인을 화나게 하여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거짓 증인과 불공정한 판결은 흔히 비난을 받는 또 다른 형태의 인간 불공정을 구성합니다. 17:15.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다 주님께 미움을 받는 자니라. 19:5.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사람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28. 무익한 증인은 공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나는 인간 공동체를 위한 정의와 특정 사람들을 위한 정의의 척도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기본 관행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복합 그림에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남을 억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남을 돕지 않고 재산을 모두 축적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이지만 합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뇌물을 거부하고 진리를 구하는 판사와 통치자가 있는 공동체라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기본 정의는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잠언에는 그러한 미덕의 정도에 대한 낙관론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악한 행위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인류학은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온전한 의미의 정의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타락이 인간의 미덕이나 공동체 정의의 모든 가능성을 파괴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도록 방향을 바꾸고, 자연을 완전하게 하고, 더 근본적으로 문화를 변화시켜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속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실을 맺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지혜의 길에서 직면하게 될 불의를 견디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중요한 덕목인 불굴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불굴의 정신은 용기와 인내를 결합합니다. 교리문답을 다시 인용하면, 불굴의 의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확고함을 보장하고 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 불변성을 보장하는 도덕적 덕목입니다. 이는 유혹에 저항하고 도덕적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결의를 강화합니다.

불굴의 미덕은 두려움,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겨내고 시련과 박해에 맞서게 해줍니다. 그것은 정당한 대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용감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 불굴의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덜한 물건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을 끈질기게 추구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한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함축적으로, 불굴의 의지는 잠언이 인류학적으로 의심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모의 교육, 지속적인 지도, 빈번한 교정의 필요성은 잠언이 우리의 끈기 또는 부족함에 대해 현실적임을 시사합니다.

분별력 배양의 필요성에 관한 이러한 현실은 철학자들이 미덕의 통일성이라고 부르는 것, 즉 하나의 미덕을 달성하는 것이 다른 미덕과 얽혀 있다는 것을 예시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지식과 용기를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인내는 절제에 대한 유혹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덕을 다른 비율로 가질지라도 미덕은 어느 정도 통일됩니다. 실제로 그 중 하나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미덕 중 어느 하나를 가져야 합니다.

비록 그 필요성이 암시적으로 어디에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언에서는 용기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겸손합니다. 불굴의 의지의 궁극적인 기초는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느니라 18:10. 잠언은 다양한 종류의 고통에 대한 인내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통의 심각성을 인정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자기 자신이 알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14:10. 웃어도 마음은 슬프고, 기쁨의 끝은 슬픔이다.

14:13. 사람의 영은 병을 참을 것이나 상한 영은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18:14. 인내는 내면의 삶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외부 환경도 다루고 있습니다.

인내하면 관원도 설득될 수 있으나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25:15.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인은 진흙탕 샘이나 오염된 샘과 같습니다.

25:26.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 28:1.

하나님은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십니다. 17:17.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고, 친척은 역경을 함께 나누기 위해 태어난다.

16:26. 노동자들의 식욕이 그들에게 작용합니다. 그들의 배고픔이 그들을 재촉합니다.

잠언은 용기를 단순히 개인의 영웅적 성취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것과 같은 필요에 따라 미덕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용기는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그에 따라 성품을 발전시켜야 하는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충분한 공급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악에 저항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은 잠언 24:10-12입니다. 너희가 환난의 날에 약하여 힘이 약하여 죽임을 당하여 비틀거리며 도살장으로 가는 자를 구원하기를 주저하여 너희가 이르기를 보라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거든 당신의 영혼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확실히, 이 비난은 개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합법적인 극단적인 행동으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러 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 구절에서 그런 종류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덕의 통일성은 용기가 신중함, 정의 등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용기 있는 행동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실제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4장 10-12절은 정치적인 용기에 대한 백지 수표가 아닙니다. 해야 할 옳은 일을 알고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면 격려가 되는 대결이기도 하다. 야고보서 4:17.

마지막으로, 용기는 노인들에게 특별한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청년의 영화는 그 힘ियो,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20:29.

평생을 인내하고 악을 공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함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것은 의로운 삶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16:31. 마지막으로, 기본 덕목 중 절제는 쾌락의 매력을 조절하고 창조된 재화의 사용에 균형을 제공합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단순히 본능적이어서는 안 되며, 이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도덕적 삶을 지나치게 지적으로 만들거나 감정에 반대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도적 측면은 인간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소명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 생각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제에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12:1. 우리의 소망은 처음에는 징계를 환영하는 기본 수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만족의 본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의 배는 텅 비었습니다. 13:25.

꿀을 얻었거든 먹을 만큼만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될 것입니다. 25:16. 대조적으로, 현재 스울 과 아바돈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2720. 절제에 수반되는 신중함은 구원을 촉진합니다. 21:20.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물이 남아 있지만 미련한 자는 그것을 삼킨다. 절제가 부족하면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24:27.

밖에서 일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 집을 짓습니다. 절제 없는 삶에 대한 묘사는 다음 강의에서 폭식, 정욕 등 중대한 악덕을 접할 때 더욱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미덕을 묘사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25:28은 위험에 처한 것을 요약합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도시와 같습니다. 물론 신약은 갈라디아서 5장,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디모데전서의 여러 구절에서 성령의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절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미 개략적으로 살펴본 기본 미덕의 현실적인 패턴과 일치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인간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과 같은 구절에서 제안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대적인 수치심까지 자제의 몇 가지 기본 표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반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문화는 여기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바보는 많습니다.

이교주의는 일반적으로 로마서 1장의 끝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리석고 우상 숭배하며 억제되지 않은 정욕의 추구에 내버려두셨음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이 마지막 날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명백한 어리석음으로 진리를 반대하는데, 이는 디모데후서 3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켜 불경건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절제와 의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복된 소망이 없으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절제를 온전히 추구할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11-13 원칙적으로 창조의 힘으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네 가지 기본 덕목 중에서 이제 우리의 연구는 특히 구속과 관련된 세 가지 신학적 덕목으로 전환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윤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 가장 완전하게 채워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시를 성취하고 넘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명을 형성하는 중요한 선구자들은 구약성서, 그곳의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나타납니다. 물론, 이교도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러한 신학적 미덕에 대해서는 느슨한 비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미덕의 형태입니다. 먼저, 믿음에 관해서는 신뢰에 대한 기본적인 광범위한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에서 신앙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끝난다.

잠언의 관련 구절들 중 몇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올바른 행실과 연관시킵니다. 예를 들면, 16장 6절, 충성과 진실로 죄악이 속해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피하게 되느니라. 신실함, 신앙 용어, 주님을 경외함 사이의 평행성을 주목하십시오.

신약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여기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길을 걷는 시작과 계속되는 여정의 각 단계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경건과 행실이 솟아나는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15:8,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8:9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에 나오는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은 겸손입니다. 토라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길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안해요, 우리 컴퓨터를 또 잃어버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이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15:3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 사이의 평행성을 주목하십시오.

20:24 우리의 모든 걸음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바니 우리가 어찌 우리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겸손은 그리스인들에게 기본 덕목은 아니었지만, 성서 전통에서는 두드러졌습니다. 교만을 죄의 우상 숭배적인 뿌리, 어쩌면 다른 주요 악덕의 뿌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신학적 덕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겸손은 희망과 사랑의 요소인 도덕적 삶에 대한 기독교적 설명에 필수적이며, 신앙의 개념에 의해 뚜렷하게 암시됩니다.

22:4이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28:25와 26이 대조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겸손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죄를 자백합니다. 28:13, 14, 허물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얻으리라.

항상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재난에 빠진다. 부, 명예, 생명, 안전, 자비, 행복 외에도 이 모든 축복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성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이로써 자신과 자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4:26 및 27을 참조하십시오.

통치자의 은총이나 우리가 신뢰하도록 유혹을 받는 그 밖의 어떤 것에도 신뢰를 두기보다는,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잠언에 대한 믿음에는 경신이 아니라 지혜가 관련됩니다. 14.15 단순한 사람은 모든 것을 믿으나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25:19 환난 때에 믿음 없는 자를 의뢰하는 것은 상한 이와 절름발이 같으니라. 분명히 우리는 바보를 신뢰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지성주의가 아닌 지혜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마치 이성에 반대되는 신앙의 주관적 특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요성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대상과 연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쏟고 그러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2:19의 맥락에서.

희망과 믿음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잠언은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고 널리 희망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는 생명으로 복을 주시지만, 지혜를 버리는 자들은 결국 어리석은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의인의 소망은 기쁨으로 끝나거니와 악인의 소망은 헛되느니라. 10:28 그러므로 지혜는 사람이 번성할 수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11:28-30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들겠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자기 집안을 어지럽히는 자의 상속은 바람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지만 폭력은 생명을 빼앗는다.

잠언에서 희망의 초점은 현재에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거나 소망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13:12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몸에 활력을 줍니다.

15:30 그렇다고 잠언은 순진한 것이 아니다. 삶에 대한 이해는 현세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의미와 범위가 정의되지 않더라도 미래의 약속도 포함합니다. 희망은 자신이 지혜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를 전파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희망이 있을 때 자녀를 징계하십시오. 그들의 멸망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19:18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젊은이들이 여전히 어리석음보다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함의 시대를 가리킨다.

그러나 맥락은 희망의 더 넓은 범위를 보여줍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반응을 보인다면 그들은 멸망을 피할 수 있고, 그들의 부모는 그들의 번영을 기뻐할 것입니다. 지혜는 젊은이들에게 신이 부여한 미래의 꿈과 같은 달콤함을 제공합니다.

24:13-14 지혜를 추구하는 다른 현세적 인센티브 중에는 적들과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6:7 그러나 대조적으로 잠언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악함, 힘, 부 및 기타 치명적인 대안으로부터 희망을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이미 언급한 본문 외에 잠언 11장 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악인이 죽으면 그 소망이 끊어지고 경건치 아니한 자의 소망이 무너지느니라 잠언 23장 18절은 죄인을 시기하는 것과 탐식하는 자와 술 취하는 자와 사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24장은 행악자를 인하여 초조해하거나 악인을 시기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악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미래의 예측 가능성에는 희망을 현명하게 둘 수 없습니다.

27: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기독교가 세상을 부정한다고 비판하는 니체에 맞서, 성경의 지혜는 즐거운 마음이 건전하며 종종 궁극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근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격려, 격려의 말, 불안을 이기는 평온한 마음, 좋은 소식 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헌신하는 삶 안에서만 온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은 단지 길의 중간이 아닌 끝에 놓여야 하며, 하나님은 결국 현자와 어리석은 자가 지금 여기에서 삶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불평등을 평탄하게 하셔야 합니다. 악인의 성공을 경시하거나 부정하려는 이 책의 바로 그 노력은 증거 A의 역할을 하며, 어쨌든 지금은 그 반대의 명백한 증거를 인정합니다. 잠언의 희망은 비합리적이거나 순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이나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이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어거스틴은 기본적인 미덕까지도 사랑의 형태로 취급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고 흠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 즉 절제의 사업이며, 불행 앞에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용기의 사업, 그분 외에는 누구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정의의 일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은 모든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깨어서 간계나 꾀술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이 지혜의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겸손은 미덕의 뿌리이고 사랑은 그 열매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랑은 나머지 모든 미덕의 뿌리이자 어머니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삶은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사랑은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의 우상 숭배 성향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죄인 교만에 반대합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도움이 되지 않는 광범위한 의미를 방지하기 위해 자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선 활동에 너무 초점을 맞춰 자선

활동을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선은 우정, 부모의 사랑, 낭만적인 사랑과 같은 선하고 자연스러운 사랑을 파괴하거나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지향하는 예수님 안에서 뚜렷하고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 잠언에서 우리가 관대함과 축복을 생각할 때 잠언은 정의와 겹쳐질 수 있는 모든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자선을 거의 의무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잠언은 관련된 관대함의 축복을 묘사하느라 바쁩니다. 11:17 인자한 사람은 자기에게 상을 주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 11:24-25, 어떤 사람들은 거저 주지만 더욱 부유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보류하고 궁핍만 겪습니다. 관대한 사람은 부유해지고, 물을 주는 사람은 물을 얻게 된다. 19장 17절은 놀라운 비유를 통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전액 갚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유물에 대한 기본 견해는 적당히 사용하면 기쁨을 나누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사용되는 반면, 그들은 우리를 속여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의 번영 복음은 참된 축복의 본질을 동등하고 적절하게 강조하지 않고 관대함과 축복 사이의 연관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부와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에 대한 잠언의 경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진 소와 미움이 함께하는 것보다 사랑이 있는 채소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5:17.

둘째, 잠언에 나오는 사랑은 자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로 도움이 필요하며,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가족, 친구, 이웃을 통해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정한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우정을 쌓지만, 진정한 친구는 가장 가까운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냅니다. 1824. 이 속담의 유래가 된 맥락에서 가족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고려하면, 이 속담에는 친구가 형제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다면 우정에 대한 놀라운 확언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이 항상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친구나 네 부모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네 환난 날에 네 친족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 27:10. 자비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다른 인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됩니다.

의인은 자기 가족의 필요를 알지만 악인의 자비는 잔인하다. 12:10. 그러므로 자선은 누군가의 삶에 스며드는 성향입니다.

당신이 앞서나가기를 원하는 친구나 상사에게 단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비로운 사랑은 셋째, 화해를 추구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가리우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0:12. 모욕을 용서하는 사람은 우정을 키우고, 논쟁을 계속하는 사람은 친구를 멀어지게 합니다. 17:9.

이것은 화해하는 자선이 오류에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사랑보다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친구가 입힌 상처는 좋은 뜻이지만, 적의 입맞춤은 아낌없는 상처입니다.

27:5, 6.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날카롭게 합니다. 27:17. 분쟁을 조장하거나 이웃을 경멸하는 대신, 우리는 공동체의 안녕을 증진해야 합니다. 때로는 위반 행위를 무시하고 때로는 은혜롭게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선 활동에 관한 특정 구절을 넘어서,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잠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미덕을 배우고 가르치도록 돕는 사랑의 교육학을 접하게 됩니다. 책 자체는 원하는 목적과 그 목적의 인내심 있는 구현 모두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 단순성과 그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많은 잠재적인 함정을 인식합니다.

잠언의 교육학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도시적이고 진부한 관용을 피하면서 확고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잠언은 현실적 이다. 인내는 끝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특정 지점을 지나면 사람들은 개혁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서는 안 됩니다. 자선은 현명한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돌이킬 가능성에 대한 순진함이나 부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선은 바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한 것이며,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에 있어서 민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마음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상처에 식초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옷에 있는 좀이나 나무에 있는 벌레처럼 슬픔은 인간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25:20 및 14:10. 그러므로 친구나 가족으로서 지혜가 자라도록 도와줄 사람에게 바람직한 것은 충성입니다. 19:22. 그리고 우리가 잠언이 구현하려고 하는 종류의 교육학에 참여하려면 자선은 신중함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바울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한 것과 같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순전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Daniel J. Trier 박사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잠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션, 잠언 10-29장, 유덕한 품성입니다.